

6.23 宣言以後의 大學生의 統一 및
安保觀의 問題點과 善導方案

1973. 11. 20



國 土 統 一 院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11월 20일

연구기관

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자 崔 聖 俊

위 원 趙 基 洙

目 次

一. 問題의 提起	7
二. 우리의 現實과 大学生	15
1. 韓國의 民主主義와 大學의 使命	15
2. 大學生의 現實參考와 「스트레트 파워」	18
三. 6.23 宣言以後의 大學生의 統一安保觀 調查 및 分析	25
1. 調查要領	25
(1) 調查目的	25
(2) 調查內容	26
표 A. 統一觀	26
표 B. 安保觀	30
(3) 調查實施 및 方法	33
① 調查實施	33
② 調查方法	34
2. 調查結果에 對한 分析	35
(1) 分析에 앞서서의 몇 가지 留意事項	35
(2) 調查結果	35
① 統一觀에 나타난 態度分析	35
② 安保觀에 나타난 態度分析	49
四. 分析結果에 나타난 問題點과 善導方案	67
1. 認識變化에 따른 問題點	67
2. 善導方案	71

一. 問題의 提起

法學問題 一

6.23 宣言 以後에 있어서의 大学生의
統一安保觀의 問題點과 善導方案

一. 問題의 提起

近 30 年間の 国土分断을 再統一하고자 애를 써온 우리 政府의 꾸준한 勞力은 드디어 72年 7.4 南北共同聲明에서 그 보람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피는 물 보다 길다" 라는 民族感情의 表現으로써 全世界人類에게 우리 民族은 文化民族이며, 小利를 버리고 大我를 찾기 위해서 이제 民族的 利益과 世界平和에 이바지하고자 国土統一을 指向하게 되었다는 것을 約束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全民族 나아가서는 全人類에게 公約하였던 7.4 南北共同聲明 精神을 밑받침 하기 위해서 南北韓은 于先 그동안 異質化 되었던 南北韓 民族의 民族的 異質性을 同化하고 民族的 大團結이란 精神下에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우리 民族의 生存과 繁榮을 確保할 수 있는 民族的 倫理觀을 摸索할 것에 合意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南北韓은 近 30 年間을 維持하였던 敵對的 對峙狀態와는 너무나도 놀라운 정도의 對照的인 急進展으로 南北對話와 人的 交流에 의한 接近을 試圖하여 왔던 것이다.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우리 民族의 生存과 繁榮은 이러한 經路를 통해서 完全한 統一을 確保하는데서만이 期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特히 우리 民族의 近代史와 強大國家를 周圍에 두고 있는 우리의 地政學上의 位置는 統一된 우리 民族의 加速的인 国力의 培養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 要請의 實現은 小利를

따라 国力培養에 適進하고, 國際的으로는 自由 共產世界를 不問하고 우리에게 敵對的 行爲를 하지 아니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門戶를 開放하여 우리의 國民 나아가서는 民族의 生存과 繁榮의 道를 世界的 次元에서 求하고자 하는데 그 意義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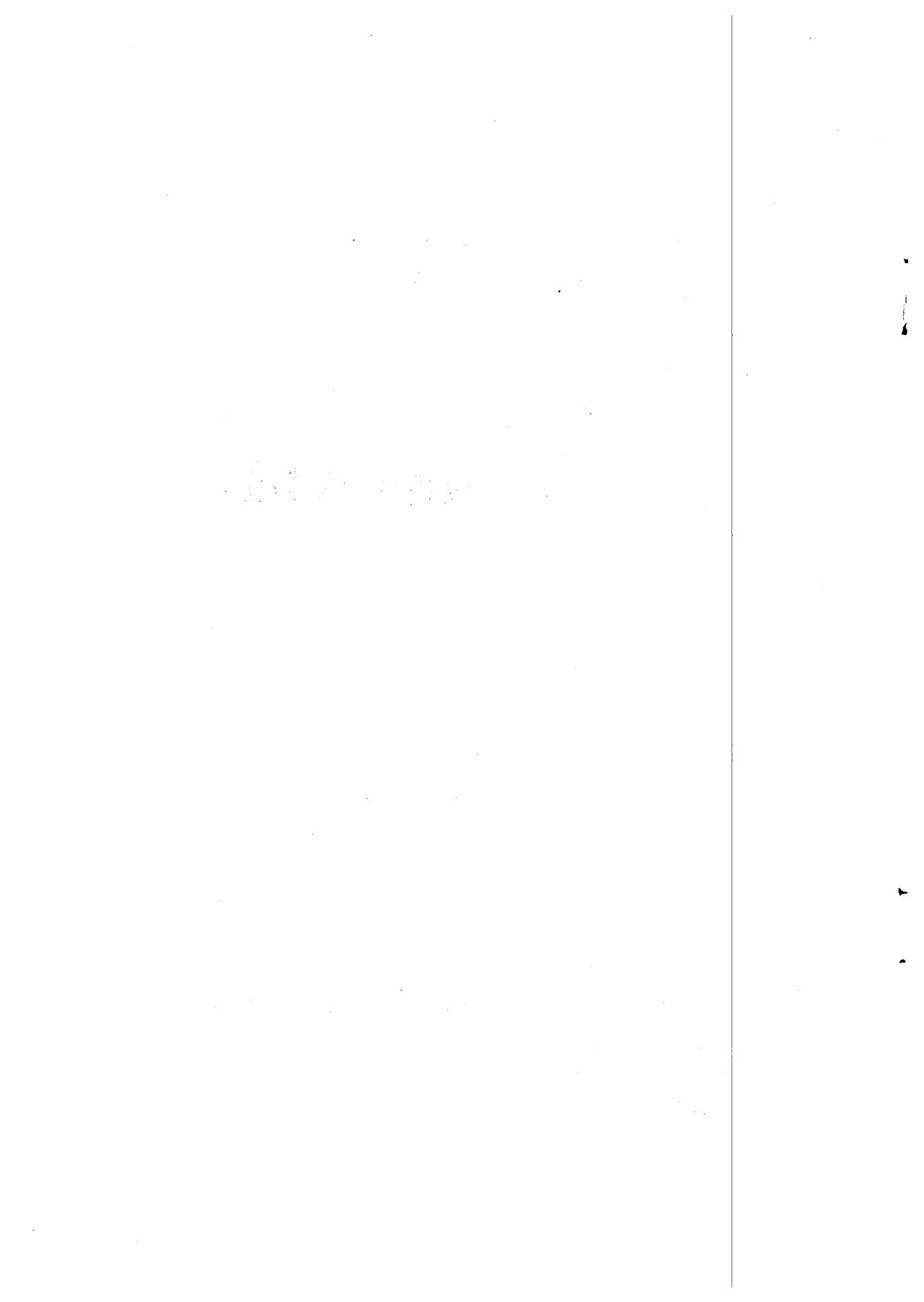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政府의 이러한 統一條件의 改善과 國際情勢의 推移에 따르는 自主的 能動的 環境適應을 宣言한 때를 같이 해서 같은날 6月 23日 저녁 北韓의 金日成은 所謂 高麗聯邦共和國案을 들고나와 모든 民族의 國土統一精神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所謂 "大民族會議" 이니 "高麗聯邦共和國" 이니 하는 用語는 새로운 것도 아니며, 이미 낡아빠진 過去의 宣信用語에다 그때 그때의 情勢變化를 감안하여 表現을 달리하는데 不過한 것으로서 그들에게는 이미 北韓共產主義政權이 樹立되면서 부터 共產主義的 赤化統一이 그들의 綱領目標로 定하여져 있었으며, 그밖의 一切의 움직임은 모두 그 目標을 達成하는 過程에 나타난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目標을 위해서 解放直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北韓住民을 一糸不亂의 體制로 組織하여 精神的으로는 金日成唯一思想으로 武裝시켰으며, 武力的으로는 所謂 4大軍事路線에 따라 武裝시켜 이것을 赤化統一을 위한 主觀的 客觀的 情勢變動에 適應시킬 것을 強要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住民에게 있어서는 그들 앞에 어떠한 事態의 變化가 닥쳐와도 그것은 平和的 手段으로써나 武力的 手段에 의해서 對処할 수 있도록 強要되고 있기 때문에 最近 2~3年동안에 일어난 모든 情勢變動에 있어서도 意見이나 行動의 分裂이 일어날 수 없으나 우리

南韓國民의 生活은 西歐式 民主主義를 生活實踐의 原理로 삼고있어 共同生活에 관한 모든 問題는 國民의 自由意思의 表現에 따라 정하여 진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複雜한 情勢變動期에는 國民의 意思決定의 基準設定에 큰 混亂을 가져올 念慮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本作業에서는 主로 6.23 宣言以後 단 하나 國土統一이라는 絶對價値를 둘러싼 구구한 價値觀의 分裂과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惡意에 찬 宣傳攻勢에 대한 大學生들의 反應을 調査 分析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知識을 提供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統一과 安保問題에 관해서 올바른 價値觀을 갖도록 善導하고 또 大學生들의 意見을 政府의 政策樹立에 參考가 되도록 그들의 與論을 把握하고자 하는에서 本調査의 研究作業이 提起된 것이다.

教育者는 學生들이 알고싶어하는 知識을 提供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그들에게 올바른 倫理觀을 確立시켜줄 責任이 있다. 爲政者는 國民이 願하는 바를 政策에 反映하여 그들의 共同의 幸福을 增進시켜줄 것을 使命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民主主義의 長点이며 全國民의 自律的이고, 自由意思에 의한 能率의 效果的인 知慧와 힘을 總動員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第2次 世界大戰에서 全体主義의 強制的 動員에 대한 英.美國의 民主主義의 自律的 動員이 結局 勝利하였다는 教訓에 의해서 立証되며, 우리의 勝共統一도 이러한 節次에 따르는 國民의 国力培養과 安保에 있어서의 總動員에 의해서 만이 可能하다고 생각하여 本作業을 始作하는 것이다.



二. 우리의 現實과 大學生

主筆大 卡實勝 1979 . 11

二. 우리의 現實과 大學生

1. 韓國의 民主主義와 大學의 使命

民主主義는 元來 人間의 自由와 平等을 그의 理念으로 하며, 이 理念의 實現을 社會正義로 하고 있다. 東西古今의 歷史的 過程에서 人類의 先祖는 專制的 支配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民主主義的 自由와 平等을 要求하여 鬪爭하여 왔다. 그것은 民主主義가 自由와 平等을 理念으로 하여 人間의 人格을 尊重하고 그들에게 幸福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民主主義는 人間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며, 따라서 그 매력때문에 많은 支配者로 부터 그 民主主義가 참치되기도 하였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오늘의 北韓共產主義者들도 모두 그들의 政治를 民主政治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民主主義의 이름밑에 自己의 政權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政治形態가 무려 40 여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結果 오늘날 各國의 民主主義政治가 例外없이 國民에게 幸福을 주는 것을 그의 理念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重要的 것은 그 理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民主主義를 運用하는 그 方法에 있다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는 人民에게 經濟的 平等을 가져다 준다는 理念下에 그것을 實現하기 위해서 프로레타리아 獨裁政權을 樹立하여 참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自由를 말살하고 있다. 人民의 利益과 幸福을 위한다는 美名下에 그것을 追求하는 方法으로써 言論, 批判, 良心의 自由를 剝奪하고 一黨獨裁 혹은 一人獨裁를

合理化하는 데 民主主義를 盜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갖고 참된 民主主義라고 의치면서 그 權力을 우리의 生活領域에 까지 拡張하려고 갖은 威脅을 다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北韓共產主義를 民主主義라고 받아들일 수 없음은 勿論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非現實的이고 非能率的인 西歐式民主主義를 그대로 無批判的으로 받아 들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民主政治는 北韓共產主義의 威脅을 물리칠 수 있고 西歐式民主主義의 浪費를 排除하므로써 急速한 時日內에 国力을 養成하여 國民의 自由와 平等을 土臺로 해서 最大限의 幸福을 國民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政治인 것이다.

이러한 政治의 發展過程은 國民社會의 機能的 調和가 이루어지는 데서 그의 效率을 發揮할 수가 있는 것이다. 各種의 社會는 그들의 固有한 利益과 理念 追求만을 目的으로 할 것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現實에 參與하여 奉仕하는 機能을 發揮해야 하며, 이 機能과 機能사이에는 一定한 均衡과 調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先進國의 民主主義와 後進 社會의 民主主義의 差異는 이러한 社會的 機能間의 調和의 程度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現實的으로 이러한 社會的 機能을 調和시켜 우리의 生活共同體를 合理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政治技術을 要求하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技術만이 韓國的 現實에 適合한 民主主義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民主主義下에서만이 우리의 生活共同體를 北韓共產主義者 및 其他의 外部로부터 保護하고 同時에 우리의 自由 平等과 最大의 幸福이 保障될 것

이다.

이러한 韓民主主義의 發展過程에서 大學이라고 해서 그 社會的 機能의 分擔을 外面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大學은 모든 知識과 文化를 開發하여 이것을 普遍化 하므로써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 하여야 할 使命을 맡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大學은 真理의 殿堂만도 아니며 象牙塔만도 아닌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現實은 大學의 國家的 社會的 機能을 크게 바라고 있다. 우리의 大學은 民族文化의 傳統을 後孫들에게 教育하여야 하며, 積極的으로 現實에 參與하여 이것을 批判하고 改善할 수 있는 研究의 機能과 國民을 啓蒙하고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한 훌륭한 人材를 養成하여 이것을 供給하는 指導的 機能을 맡으므로써 國家 民族에 대한 奉仕의 精神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에서 研究하는 學問이 아무리 普遍的 真理라 하더라도, 그리고 大學에서 가리키는 學問이 아무리 理念을 重要視한다 하여도 自己나라의 民族的 感情과 民族意識을 벗어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그 真理와 理念의 價值가 認定되며 또 그의 存在意義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大學은 積極的으로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해서 研究 指導하고 將來의 훌륭한 指導者가 되어 우리民族의 幸福과 繁榮을 實現할 수 있는 人材養成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大學生の 現實參與와 「스튜던트 파워」

現代社會는 大學生の 現實參與를 自招하고 있다. 그것은 大衆民主主義의 政治的 背景을 갖고 大學生도 이미 成年이 되어 參政權이 賦與되어 있는 데다가 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이 國家 社會發展에 積極的으로 奉仕함을 그 使命으로 하게 된 以上 大學社會의 構成員인 大學生이 國家社會에 參與하여 活動하게 된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大學生이라는 集團의 힘 다시 말하면 「스튜던트 파워」가 어떠한 作用으로써 現實社會에 參與하여 機能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大學生の 現實參與는 여러 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意義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夏季 冬季放學期間을 利用해서 農漁村開發을 위한 啓蒙, 醫療, 勤勞奉仕 活動에서, 國家安保機能의 一部를 分擔하는 學生敎練, 그리고 戰時下에 있어서의 나라와 民族을 守護하기 위한 學徒義勇兵出征, 나아가서는 社會正義가 實現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政治參與에 이르기까지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生들의 現實參與는 社會, 軍事, 政治等 廣範한 分野에 이르기까지 그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오늘날 大學生の 現實參與는 그 意義가 높이 評價되며 그것을 격려하는바 이지만은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그들의 政治參與의 境遇라 할 것이다.

最近 10餘年間 歐美各國과 日本等地에서 일어나고 있는 學生소동은 모두 이러한 社會的 與件下에서 由來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봉테스큐」는 國民意思를 尊重하여 政治를 하도록 하기위한 措置로써

權力機能을 세 개의 獨立된 機關 즉 立法, 司法, 行政府에 各各 分担시킬 것을 構想하였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三權間에 均衡·均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國民意思가 無視되어 社會正義가 破壞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大學生들의 所謂 「스튜던트 파워」가 그의 補足的 機能으로서 役割하게 될 만큼 成長하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勿論 大學生들은 社會人도 政治人도 經世家도 아니며 그들의 本務는 大學社會에서 學問을 연마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써 그들의 生活은 萬足할 것이며, 또 그 生活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탓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大學時節은 누구나 知性人으로서의 矜持와 無限한 理想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自然히 現實의 不條理에 대한 不平 不滿은 소박하나마 自己의 正義感和 結付시켜 發露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大學生이라는 自我에서 脫皮하여 이 나라의 國民이요 將來의 主人公이라는 次元으로 昇華해서 과감하게 國家社會의 不條理에 挑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들의 使命感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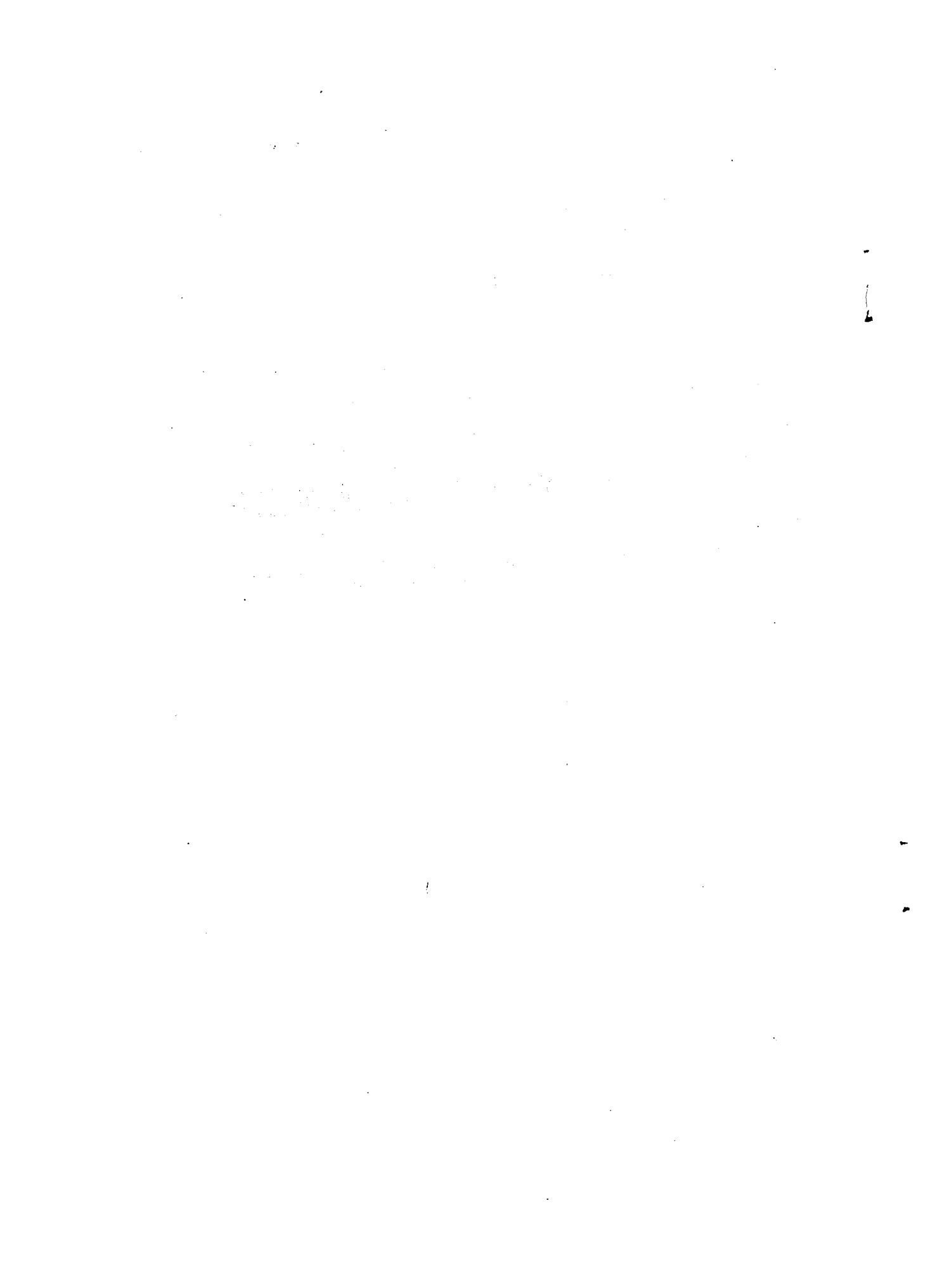
더우기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國家社會發展을 위한 使命感은 世界的으로 有名한 것이다. 그것은 멀리 3.1 運動, 光州學生事件, 6.10 獨立萬才事件에서 부터 最近 4.19 學生義舉에 이르기까지 그 影響力은 世界的으로 떨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特히 4.19 學生義舉는 歐美各國과 日本의 學生들을 놀라게 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거의 그칠 날이 없이 「메모」소동을 일으켜도 政治的인 큰 反應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韓國學生들의 勇猛은 強力한 李承晩政權을 전복 시켰다는

것을 큰 威力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韓國大學生들의 「스튜던트 파워」는 世界各國學生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固有한 韓國的 因果關係가 潛在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如何間 韓國大學生들의 現實參與意識은 無視할 수 없을 만큼 大端한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韓國大學生들의 「스튜던트 파워」가 批判과 反抗과 전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土의 統一과 安保에 의해서 우리의 幸福을 追求하여야 한다는 民族的 使命感을 갖고 機能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大學에서 배운 知識은 民族感情이나 民族意識을 超然하는 普遍性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民族의 將來를 위해서 그 知識을 배우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知性人으로서의 大學生들이 우리의 國家 社會가 屢해있는 情勢觀을 올바르게 把握하고 積極 이에 參與하여 그들의 使命을 遂行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大學生들의 이와같은 現實參與가 不可避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 既成人들의 責任이 多大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既成人들의 社會的 機能이 그들에게 萬足感을 주었던들 그들의 參與意識을 誘發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既成人들의 大學生들에 대한 責任과 未安한 마음을 덜 느끼고 그들을 現實參與에로 引導하는 길은 그들에게 올바른 價值觀을 세워주고 萬足된 將來를 約束해 주는 것 뿐이다. 社會的 現實의 不條理를 과감하게 是正하고, 北韓共產主義의 正體를 公開하여 그

들에게 理解를 시키며, 個人의 自由와 尊嚴을 保障하는 自由民主主義의 價値를 부여하고,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우리民族의 生存과 繁榮은 自主性, 自立性, 主体性에 의한 安保와 統一의 眞만이 있을 뿐 이라는 信念을 갖고 自己들의 앞날을 위한 創造性을 發揮할 수 있는 方向으로 그들을 善導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事態發展의 變化에 대한 그들의 意識態度를 調査 分析하여 이에 善導策을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三. 6.23 宣言以後의 大學生의
統一安保觀 調査 및 分析

三 . 83 宣 言 恩 對 大 學 學 生

一 定 規 則 確 立 查 實 報 告

三. 6.23 宣言以後의 大学生의 統一安保觀 調査 및 分析

1. 調査要領

(1) 調査目的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大学生은 그 어느나라 大学生들 못지않게 現實에 깊은 關心을 갖고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大學의 教授나 社會指導者 혹은 爲政者들이 그들의 社會的 動態에 대해서 더욱 깊은 關心을 갖게되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 關心이란 젊은 時節에 흔히 가질 수 있는 大学生의 反抗心 또는 幻想이나 感情에 도취되어 잘못된 情勢觀 및 統一安保觀을 갖고 脫線하거나 앎을 까 하는 先入感이나 既成世代의 老惡心에서 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흔히 一方的으로 정하여진 知識의 內容을 갖고 啓蒙教育을 注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전혀 無視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意味에서는 一般性和 客觀성이 欠如되어 있다고도 解釋할 수 있다. 一人의 境遇가 萬人에게 妥當할 수 없는 것이고, 한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해서 萬人에게 綜合 비타민劑를 먹여 보았자 그 藥効는 제대로 發揮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本研究所에서는 大学生들이 統一 및 安保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잘못 認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正確히 調査 分析하여 그들을 위한 政治教育和 國論善導의 資料로 할 것

이며, 아울러 이것을 整理하여 政府의 政策樹立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

(2) 調查內容

調查內容은 다음과 같으며, 設問構成에 있어서 學生들의 認識態度를 明白히 把握하고자 肯定과 否定으로 区分하여 肯定에 있어서 積極的 態도와 消極的 態度, 그리고 否定에 있어서도 積極的 態도와 消極的 態도의 4個 項目과 學生들 自身の 意思를 陳述할 機會를 주기 위해서 「기타」의 項目을 하나 두었으며, 끝으로 肯定도 否定도 아닌 中立的 態度 表明은 「모르겠다」項目에 包含시키기로 하고 모두 한 問題에 6個의 答項씩으로 構成하였다. 그러나 全問題가 6個의 答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가 一律적으로 이러한 態度表明의 스타일로 構成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被調查者의 認識態度를 그의 成分別로 分析하기 위해서 參考로 學問專攻別, 性別, 出身道別, 年齡別, 親權者의 職業別의 記入欄을 첨부하였다.

다 음

統一 및 安保價值觀에
關한 與論 調查內容

표 A. 통일觀 (統一觀)

1. 남북대화재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계속하여야 한다.

- ② 계속해도 좋을 것이다.
- ③ 계속할 필요가 없다.
- ④ 전혀 계속할 필요가 없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2.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에 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 ①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선전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진정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남북적십자회담, 조절위원회회담을 파괴하기 위한 술책이다.
- ④ 상부적인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3. 대한민국측이 내놓은 남북사회 완전개방론은?

- ① 통일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 ② 북한을 자유화해서 통일이 촉진된다.
- ③ 남한이 공산화될 염려가 있다.
- ④ 남북한이 서로 이해가 되어 통일을 촉진 시킨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4.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어떤 순서에서 시작하여야 할까요?

- ① 정치·군사, → 비정치, → 인도적인 문제
- ② 비정치, → 정치·군사, → 인도적인 문제

- ③ 인도, → 비정치, → 정치. 군사적인 문제
- ④ 인도, → 정치. 군사, → 비정치적인 문제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5.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공화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한반도에 영원한 두개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 ② 진정한 통일국가의 구상이다.
- ③ 남한에 까지 북한공산주의 정권을 확장하려는 술책이다.
- ④ 국내, 국제적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6. 우리측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론은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요?

- ① 두개의 한국이 생기게 되어 통일에 지장이 있다.
- ② 실제로는 하나의 한국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통일에는 지장이 없다.
- ③ 국제감시하에서 통일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 ④ 통일에는 가장 나쁜 방안이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7. 남북대화의 중단은 다음 어느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측에 있다.
- ② 남한측에 있다.

- ③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다.
- ④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8.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측의 노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 ① 성의가 없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진정한 성의가 대단히 크다.
- ④ 북한보다는 성의가 적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9.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 ① 사람이 살수 없는 생지옥 같은 곳이다.
- ② 그런대로 살수 있을것 같다.
- ③ 지상낙원처럼 사람살기가 아주 좋을것 같다.
- ④ 그러나 대한민국만 못할것 같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10. 통일성취의 시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5년 후부터 10년 이내에
- ② 10년 후부터 20년 사이에
- ③ 20년 이후에는 꼭 통일이 성취된다.

④ 지금 형편으로는 알 수 없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표 B. 안 보 관 (安 保 觀)

1. 우리의 대공산권 개방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나라 안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② 우리나라 안보에 대단히 위험하다.

③ 북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④ 북한의 공산권내에서의 지위를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2.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의 반공법, 국가안보법 폐지 요구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남한에서의 간첩활동을 자유로히 하자는 것이다.

② 남한국민의 반공사상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③ 남한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④ 남북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이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3. 북한의 남북한 군비축소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휴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을 없애자는 것이다.

② 남한의 군사력의 공백을 만들어 무력남침 할려는 흉계이다.

③ 진정으로 무력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④ 남한이 무력북진통일을 할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4. 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서이다.

② 외국군대의 남한주둔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다.

③ 평화를 가장해서 북한만의 무력증강을 할려는 속셈이다.

④ 우리의 총력안보 정신을 약화시킬려는 것이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5. 외국군대 철수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될때까지는 절대로 철수해서는 안된다.

② 유.엔군은 철수하고 미군은 남아도 좋다.

③ 외국군은 전부 철수해야 한다.

④ 철수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6. 북한이 또다시 남침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기 뜻대로 통일이 안되면 반드시 무력남침한다.

② 무력남침 할지도 모른다.

- ③ 무력남침 안한다.
- ④ 무력남침은 완전히 포기했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7. 우리의 향토예비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더욱 증강해야 한다.
- ② 현재의 정도로 알맞는다.
- ③ 예비군을 줄여도 안보에 지장이 없다.
- ④ 별로 소용이 없으니 완전히 없애도 무방하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8. 학생교련에 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 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학생교련은 절대로 필요하다.
- ② 필요하기는 하나 공부에 지장이 있다.
- ③ 학생교련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교련시간을 줄이던지 아주 없애면 좋겠다.
- ⑤ 기 타
- ⑥ 모르겠다.

9. 남한이 북한에 비해 어떤 점이 약하다고 느껴 집니까?

- ① 경제력이 약하다.
- ② 군사력이 약하다.
- ③ 정신력이 약하다.

④ 위 세가지 또는 그중 두가지 다 약하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10. 우리의 안보는 누가 해야 할까요?

① 미군과 유.엔군이 해야한다.

② 일본이 맡아야 한다.

③ 우리 국군과 경찰만이 해야한다.

④ 전국민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총력안보가 된다.

⑤ 기 타

⑥ 모르겠다.

(3) 調査実施 및 方法

① 調査実施

調査는 1973年 11月 7日과 同 8日 兩日間에 施行하였으며, 調査對象은 朝鮮大學校 法政大學 一學年生, 二部大 一年生과 同 工科大學 一學年生, 그리고 同 女子初級大學 一學年生으로 하여 合計 350名을 選定하였다. 社會科學系와 理工系를 選定한 理由는 情勢觀에

관한 認識의 態度가 그들의 學問分野에 따라 어떤 差異를 나타내는지를 把握하기 위한 것이고, 또 女大生을 對象으로 하게 된 것은 男學生과 女學生間에는 同一問題에 대한 認識構造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一學年生만을 相對로 한 것은 그들이 現在 國民倫理講義를 受講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에서의 國民倫理教育이 學生들에게 어느 程度의 啓蒙教育이 되고 있는지를 分析하여 이로써 効果的인 教育方法을 摸索해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

② 調查方法

따라서 이들 350명의 被調查者를 選定해 놓고, 1973年 10月 29日과 同 10月 31日 二회에 걸쳐 主로 國民倫理担当教授와 本研究所 研究員들에 의해서 간단한 時局觀에 관한 啓蒙教育을 實施한 바는 있다. 調查員들은 事前에 訓練을 몇차례 받았으며, 最終的인 調查는 國民倫理時間에 양해를 얻어 이들 調查員들이 直接 調查問答紙를 配布하고 또 回收하는 方法을 취하였다. 勿論 自由분위기 속에서 同調查는 進行되었다.

2. 調査結果에 대한 分析

(1) 分析에 앞서서의 몇가지 留意事項

本調査에서는 元來 被調査者の 專攻分野別, 性別, 年令別, 出身道別, 親權者の 職業別, 等으로 細分하여 調査는 하였으나, 調査結果에 나타난 것으로보아 意識構造의 差異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紙面關係上 被調査者 350名에 대한 全体統計와 이것을 細分하여 專攻分野別로 分析해 보았으며, 또한 男學生과 女學生間의 差異의 檢討와 親權者職業別 分析은 農家出身學生 92名의 全体에 대한 意識變化의 差異點만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各 項目別 統計에 나타난 人員數는 正確하나 便宜上 応答者 總數의 比率에 맞추기 위해서 被調査者區別 統計率에는 若干식의 誤差가 있음을 是認한다. 그리고 各 問答表에 使用되는 文章은 省略語句를 使用하며 또 各 問答者는 參考가 되는 各 페이지의 下段에 記載하여 <표A~號> <표B~號>로써 識別하게 하였다.

(2) 調査結果

① 統一觀에 나타난 態度分析

ㄱ. 南北對話 再開에 관하여 <표A~1>

이 問題에 대해서 統一을 摸索하기 위해서는 「絶對로 對話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希望을 가진 學生이 全体의 43%이며, 그 동안의 南北對話 進行過程으로보아 별 큰 期待를 갖지 못하겠다는 消

極的인 態度로 「계속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表明한 것이 27%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 否定的인 立場의 消極的 態度이기는 하나 「對話를 계속할 必要가 없다」는 率이 24%나 되며, 그 밖의 것을 모두 합하면 南北對話에 期待를 갖지 않는 數가 約 30%에 달한다. 全體的으로 보아 나머지 70%는 對話의 再開에 의해서 平和的인 統一의 成就를 希望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各 分野別로 細分해보면 社会科学分野가 118名中 55%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比率이며, 다음은 自然科学分野, 人文科学分野의 順으로 對話를 絶對로 再開하여야 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性別에 있어서는 男學生이 積極的인 態度로 231名中 48%로 女學生의 34%보다 훨씬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特히 이 地方은 農

<표 A~1> 남북대화 재개에 관하여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체 (350명)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명	%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絶對로 계속하여야 한다	149	43	40	34	65	55	44	38	109	48	40	34	40	44		
② 계속해도 좋을 것이다	94	27	34	28	26	22	34	30	60	26	34	29	28	31		
③ 계속할 필요가 없다	86	24	41	34	19	16	26	23	45	19	41	34	18	19		
④ 전혀 필요가 없다	14	4	2	2	8	7	4	4	12	5	2	2	6	6		
⑤ 기타	3	1	0	0	0	0	3	3	3	1	0	0	0	0		
⑥ 모르겠다	4	1	2	2	0	0	2	2	2	1	2	1	0	0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村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出身學生들의 意識態度에는 어떤 差異를 나타낼 것인지가 궁금하였으나 全被調査者中 農村出身學生이 92名으로서 그 中에서도 44%와 31%가 南北對話再開의 肯定的인 面에서 積極的 或은 消極的 態度로 支持하고 있음을 보아 오히려 높은 關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ㄴ. 北韓이 主張하는 大民族會議에 관해서 <표 A ~ 2 >

이 問題에 대한 一般的인 回答에 注目을 끄는 것은 <표 A ~ 1 >에 比해서 「기타」와 「모르겠다」의 比率이 약간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同質問內容을 잘 알고있는 學生들은 全體의 過半數나 되는 43%가 北韓의 「상투적인 선전수단」이라고 일소에 부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3%는 亦是 「남한에 대한 共產主義선전을 하기위한

<표 A ~ 2 > 대민족회의에 관하여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 학생	
	전 체 (350명)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대남 공산주의 선전 수단	79	23	23	10	33	28	23	20	56	24	23	19	24	26
② 진정한 통일기반을 위해서	28	8	21	18	3	3	4	4	7	3	21	18	4	4
③ 남북대화파괴술책	38	11	12	10	18	15	8	7	26	11	12	10	12	13
④ 상투적선전수단	149	43	48	41	40	34	61	53	101	44	48	41	40	44
⑤ 기 타	12	3	5	4	3	2	4	4	7	3	5	4	0	0
⑥ 모르겠다	44	13	10	8	21	18	13	12	34	15	10	8	12	13
응답자총수 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手段」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北韓의 提案에 대해서는 별로 큰 價値를 認定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을 細分하여 보아도 亦是 北韓의 「상투적인 선전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自然科學系에 있어서의 53%가 가장 높으며, 다음 人文系 41%, 男女區別에 있어서는 男學生이 44%로 女學生 41%보다 약간 높으며, 農村出身學生에 있어서도 44%로 6個의 応答態度中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所謂 南北韓 各 政党 社会团体, 各階 各層代表者連席會議의 提案을 받아마진 그들의 赤色 宣伝用語에 不過 함을 一般적으로 認識하고 있는 態度인 것이다.

ㄷ. 南北社会 完全開放論 <표 A ~ 3>

이 質問에 대하여서는 「南北韓이 서로가 理解가되어 統一을 促進시킨다」는 認識이 全體의 60%를 비롯해서 各分野別에 있어서도

<표 A ~ 3> 남북사회 완전 개방론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비율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신학생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통일을가로막는정책	7	2	4	3	1	1	2	2	3	1	4	3	0	0
② 북한 의 자유화 를 위하여	42	12	14	12	14	11	14	12	28	13	14	12	10	11
③ 남한 이 공산화 될 염려	54	16	16	13	20	17	18	16	38	16	16	13	20	23
④ 상호이해로통일촉진	214	60	79	67	71	60	64	56	135	58	79	67	55	59
⑤ 기 타	8	3	0	0	3	3	5	5	8	4	0	0	3	3
⑥ 모르겠다	25	7	6	5	9	8	10	9	19	8	6	5	4	4
응답자총수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共通적으로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음이 特徵이라할 것이다. 이것은 南北間에 서로 誤解와 不信을 解消시킬 수 있으며, 同時에 그들의 對南宣傳의 眞否를 直接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될 것이고, 또 北韓의 모든 對南戰略을 분쇄할 수 있는 合理的인 方案으로 생각한데서 취해진 態度表明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積極的인 態度에 比해서 消極的으로는 南北社會를 完全히 開放하는 것은 統一을 促進시키게 되어 좋기는하나 자칫하면 「남한이 共產化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學生數도 적지않다는 것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이 比率은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이 質問에 있어서는 次順의 回答이 되고 있으며, 그들은 北韓의 体制의 長点이나 共產主義思想의 價値에 끌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랄한 手法에 의해서 南韓이 赤化가될 念慮가 없지 않다는 愛國的 態度에서 이런 기우심을 갖고 있음이 明白한 것이다 < 표 A ~ 9 參照 >.

특히 北韓이 南韓에 있어서의 農漁村을 그들의 地下黨組織의 거점으로 構想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농촌 出身學生들은 23% 라는 가장높은 比率로 北韓에 대한 警戒態度를 表明하고 있는 것이다. 이 態度에 관해서도 < 표 A ~ 9 > 를 參考해서 分析해보면 大韓民國에 대한 愛國精神에서 現在의 農村生活環境條件下에서는 多分히 北韓의 共產主義宣位에 빠지기 쉬운 것이라는 취약성을 改善할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것은 거짓없는 農村學生들의 순진한 自己告白이라는 점에 特別히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ㄷ. 統一實現의 順序 <표 A ~ 4 >

여기서는 南北韓 어느쪽이 統一實現을 위한 合理的인 順序를 提示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北韓은 南北對話가 갈게 풀면 풀수록, 그리고 人的 物的 交流의 빈도가 늘어나고 또 그 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들의 体制는 와해되고 따라서 赤化統一의 야욕은 完全히 失敗하게 될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政治, 軍事問題의 先決로써 南韓에다 共產主義活動의 基盤을 만들어 놓고 점차 政權을 奪取하자는 속셈으로 統一의 實現을 政治, 軍事→非政治, →人道的인 問題의 順으로 進行할 것을 要求하고 있으나, 南韓은 그와 反對로 人道的인 問題에서 始作하여 먼저 南北韓의 不信과 誤解를 풀어가면서 漸次 物的 人的 交流를 거쳐 最終的으로는 政治.

<표 A ~ 4 > 통일실현의 순서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학생	
	(350명)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신 학생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정치, 군사, 비정치, 인도	46	13	10	8	18	15	18	15	36	16	10	8	8	8		
② 비정치, 정치, 군사, 인도	34	10	13	11	8	7	13	12	21	9	13	11	12	14		
③ 인도, 비정치, 정치, 군사	200	57	64	54	76	64	60	53	136	59	64	54	56	60		
④ 인도, 정치, 군사, 비정치	51	15	25	21	11	9	15	13	26	11	25	21	12	14		
⑤ 기 타	7	2	2	2	3	3	2	2	5	2	2	2	0	0		
⑥ 모르겠다	12	3	5	4	2	2	5	5	7	3	5	4	4	4		
응답자총수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軍事에 의한 完全한 南北統合을 實現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調査結果는 亦是 우리側案의 三段階統一方案을 支持한 率이 全體의 57%라는 過半數를 비롯해서 專攻分野別로는 社會科學分野가 64%로 가장 높으며, 男女別로는 서로 비슷하나 농촌出身學生들도 60%로써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 北韓側案에 贊意를 表明한 것은 全體가 不過 13%에, 社會, 自然系가 各各 15%로 同率이며, 특히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倍나 되는 16%를 表示하여 이에 同調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態度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分析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側提案이 끝내 北韓側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眞正한 統一을 위하여 그들의 提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 그들의 提案을 受諾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安保 및 国力에는 自信을 갖고 있다는 解釈도 될 것이다. 結局 이러한 意識構造는 統一의 實現을 위하여서는 그 順序때문에 阻止되어서는 아니된다는 態度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高麗聯邦共和國의 提案 <표 A ~ 5 >

一般的으로 이 問題에 대한 応答은 「남한에 까지 共產主義政權을 擴張하려는 術策이다」라는 態度表明이 全體의 47%로서 支配的이며, 그 다음으로 「國內 國際적으로 與論을 造作하기 위한 手段이다」라는 생각이 次順을 점하고 있다. 北韓은 60年代以來로 南北聯邦制에 의한 統一의 接近을 부르짖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 6.23 特別宣言으로 우리政府의 對共產圈門戶開放政策을 提案하게 되자 같은

날 北韓의 金日成은 從來의 聯邦制라는 構想에다 固有名詞를 붙여서 「高麗聯邦共和國」이라고 이름만을 바꾸어서 또다시 선전공세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名稱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學生들의 數도 약간 있지만 알고있는 學生中에서도 「高麗聯邦共和國」案에 따르는 것이 眞正한 「統一國家의 構想이나」고 한데 대해서 그以上の 數로써 否定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大體로 보아서 北韓의 所謂 「高麗聯邦共和國」提案에 대해서는 「南韓에 共產主義 擴張」과 「國際的 國內的 與論造作의 手段」이라는 応答으로 集約되어 있으며, 特히 人文分野에서 이것을 53%와 28%로써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 표 A ~ 5 > 고려연방공화국에 관하여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 체 (350명)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 신학생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두개의 국가탄생	38	11	4	3	12	10	22	19	34	15	4	3	8	8
② 통일국가의구상	12	3	10	8	2	2	0	0	2	1	10	8	4	4
③ 남한에 공산주 의 확장	164	47	63	53	53	45	48	43	101	44	63	53	36	40
④ 여론조작수단	104	29	33	28	43	36	28	24	71	31	33	28	36	40
⑤ 기 타	5	2	2	2	0	0	3	3	3	1	2	2	0	0
⑥ 모르겠다	27	8	7	6	8	7	12	11	20	8	7	6	8	8
응답자총수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ㄴ. 南北韓 同時유.엔加入問題 <표 A ~ 6 >

이에 대해서는 大體로 세계의 形態로 學生들의 態度가 分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南北韓同時유.엔加入이 統一에 미치는 가장 나쁜 方案」이라는 否定的인 態度는 極少數이기는 하나 全體의 分析만 보아도 「國際감시하에 統一하는 最善의 方案이다」라는 생각이 37%에, 「두개의 한국이 생기게되어 統一에 支障이 있다」라고 念慮하는 消極的인 否定的 態度가 29%나 되고 「實際로는 하나의 한국으로 認定되기 때문에 統一에는 支障이 없다」는 消極的 肯定的 立場에서는 學生이 24%에 달하여 結局 이 問題에 대한 肯定的인 態度表明은 37%와 24%를 합해서 61%라는 支配的인 比率에 달하기는 하나 아직도 學生들에게는 南北韓同時유.엔加入에 대한 理解와 계몽교육이

<표 A ~ 6 > 남북한동시유.엔가입론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학생	
	비 율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두개의 한국 탄생	102	29	36	30	41	35	25	22	66	27	36	30	26	29	
② 통일에 지장이 없다	84	24	30	25	28	24	26	23	54	23	30	25	28	31	
③ 국제감시하에 통일	132	37	47	40	40	34	45	39	95	40	47	40	28	31	
④ 통일에는 가장 나쁜 방법	10	3	1	1	5	4	4	4	9	4	1	1	4	4	
⑤ 기 타	6	2	0	0	3	2	3	3	6	2	0	0	0	0	
⑥ 모르겠다	16	5	5	4	1	1	10	9	11	4	5	4	5	5	
응답자 총수 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不足한 現狀임을 立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区分別로 보면 社会科学分野가 35%, 人文系가 30%, 기타 것이 비슷한 比率로 「두개의 한국이 탄생하여 統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八. 南北對話中斷責任 < 표 A ~ 7 >

南北對話가 어느쪽의 잘못으로 中斷되었느냐에 관한 그 責任의 所在를 質問하였다. 이에대한 応答態度는 南韓側에만 그 責任이 있다고 생각하는 學生은 아주 少数인데 反하여 北韓側의 無誠意한 態度에 그 責任이 있다고 보는 比率이 40%이고, 놀라움게도 「兩쪽에 모두 그 責任이 있다」는 態度表示가 全體의 半數인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区分別로 보면 것이 모든 分野에서 圧倒的으로 中

< 표 A ~ 7 > 남북대화의 중단 책임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전체 (350명)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북한측에 있다	141	40	35	30	56	48	50	44	106	46	35	30	38	41
② 남한측에 있다	14	4	8	6	0	0	6	6	6	3	8	7	2	2
③ 양쪽에 책임 있다	176	50	72	60	54	47	50	44	104	45	72	60	52	57
④ 어느쪽도 책임 없다	8	2	2	2	4	3	2	2	6	2	2	2	0	0
⑤ 기타	2	1	0	0	0	0	2	1	2	1	0	0	0	0
⑥ 모르겠다	9	3	2	2	4	2	3	3	7	3	2	1	0	0
응답자총수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斷責任의 所在을 南北韓 兩쪽에 두고 있으며, 社会科学分野와 男女区分에 있어서의 男學生이 겨우 1% 식을 上廻하는 程度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特히 人文系는 女學生이고, 社会·自然系는 男學生이라는 区分에서 보아, 男學生과 女學生間의 意識表明의 差異가 45% 對 60%의 比率로 크다는 것은 平素의 南北對話過程에 관한 関心과 知識의 差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結果的으로 나타난 南北對話中斷 그 自体만을 皮相적으로 파악한데서 「兩쪽에 모두 그 責任이 있다」라는 態度를 취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結局 이 問題에 관해서도 北韓側의 高의적인 對話中斷工作을 學生들에게 充分히 理解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特히 지난번의 金大中氏事件을 계기로하여 北韓側이 一方的으로 對話中斷을 宣言한데 대하여 學生들이 北韓側의 對話中斷理由를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亦是 계몽교육이 不足하다는 감을 느끼게 한다.

○. 統一을 위한 大韓民國側의 勞力 <표 A ~ 8 >

<표 A ~ 8 >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 체 (350명)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 신학생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성의 가없다	13	3	8	7	1	1	4	4	5	2	8	7	3	3
② 그저 그렇다	145	42	60	50	40	33	45	39	85	38	60	50	37	40
③ 성의가 대단히 크다	164	47	46	39	66	56	52	46	118	51	46	39	38	42
④ 북한보다 성의가 적다	6	2	2	2	2	2	2	2	4	1	2	2	2	2
⑤ 기 타	5	2	0	0	2	2	3	3	5	2	0	0	4	4
⑥ 모르겠다	17	4	3	2	7	6	7	6	14	6	3	2	8	9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北韓보다 南韓이 성의가 적다」고 생각하는 學生은 아주 적으나 「성의가 대단히 크다」는 積極的 態度와 「그저 그렇다」고 보는 消極的 態度의 差異가 一般的으로 근소하며, 特別히 女學生은 「성의가 대단히 크다」는 態度 39%에 比해서 「그저 그렇다」는 消極的 態度로써 不万(?)을 表示한 것이 50%에 달하여 그들의 욕구불만을 充足시켜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全體的으로 보아서 「북한보다 성의가 적다」거나 「성의가 아주 없다」는 比率은 모두 5%에 不過하나 「성의가 대단히 크다」와 「그저 그렇다」는 肯定的인 態度가 約 90%라는 圧倒的 多數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政府의 統一을 위한 勞苦를 學生들이 充分히 理解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2. 北韓에 대한 印象 <표 A~9>

<표 A~9> 북한에 대한 인상

응답구분	미조사자구분 비율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전체 (350명)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생지옥같은곳이다	53	15	18	15	19	16	16	14	35	15	18	15	12	13
② 그런대로살수있다	105	30	40	34	35	30	30	28	65	28	40	33	26	29
③ 지상낙원같다	3	1	0	0	0	0	3	3	3	1	0	0	0	0
④ 대한민국만못하다	167	48	58	49	56	47	53	45	109	48	58	50	46	49
⑤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⑥ 모르겠다	21	6	3	2	8	7	10	10	18	8	3	2	8	9
응답자총수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南北韓의 全民族을 기만하기 위해서 北韓社會를 「地上樂園」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동안의 南北對話와 交流를 통해서 極히 制限된 部分이기는 하나 北韓에 대한 印象을 學生들이 어느 程度는 느끼고 있으리라고 믿고 이 問題를 提示하였다. 그 結果 北韓을 「地上樂園같다」는 印象을 가진 學生은 全體의 不過 1%程度 인데 반해서 「생지옥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學生의 比率이 15%나 된다. 가장 支配的인 것은 亦是 「대한민국만은 못하다」가 48% 인데 대해서 그저 「그런대로 살수도 있을것 같다」는 態度가 30%로써 적지 않다는 것이다. 南北韓의 比較感覺에서 北韓보다 南韓이 살기 좋을 것이라는 意識 構造는 그동안의 反共, 勝共教育의 效果로써 當然히 그 以上の 比率이 期待되나 北韓을 「그런대로 살수도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學生의 比率이 이 程度로 높아졌다는 것은 北韓을 지금까지는 생지옥같은 곳이라고 알고있던 意識構造가 南北對話 過程에서 얻어진 단편적인 知識들에 의해서 그 構造的 變化를 이룬 部分이라고 分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部分의 成長率을 抑制하는 方法은 北韓의 現狀生活面을 學生들에게 더 具體적으로 理解시켜 그들을 北韓에 대한 감상적인 동경심으로 부터 그에대한 환멸감으로 還元하도록 계몽 善導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ㄱ. 統一成就의 時期豫測 <표 A ~ 10 >

統一은 너무나도 當然한 民族的 課題이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韓은 7.4 南北共同聲明精神을 받들고 統一에의 接近을 試圖하여 왔다. 너무나도 짧은 期間에 너무나도 많은 勞力을 하였으나 分斷狀態는

如前히 原点 그대로에 머물고 있다. 그 過程에 있어서 서로 서로 相對方의 意思와 態度를 打診도 해 보았다. 豫想대로 물과 기름같은 異質物이 하나의 同質物로 그 本質을 바꾸어 同化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일 입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동안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無誠意한 態度와 一方的인 對話中斷宣言은 全民族으로 하여금 統一의 期待感을 經望에로 이끌었다. 本調査에 나타난 比率만 보아도 全体學生의 79%라는 圧倒的 多數가 「지금形便으로는 統一의 時期를 알수 없다」는 応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男學生보다 女學生의 比率이 더 높으며, 농촌학생의 比率이 그 다음으로 간다. 그래도 統一成就의 時期를 豫測할 수 있다면 긴 眼目으로 「10年후부터 20年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比率은 全体의 10%가 展望하고

< 표 A ~ 10 > 통일성취의 시기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학생	
	비율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5년~10년	12	3	3	2	7	6	2	2	9	4	3	2	4	4		
② 10년~20년	36	10	7	6	16	13	13	12	29	11	7	6	8	8		
③ 20년후에는꼭통일	12	3	6	5	2	2	4	4	6	2	6	5	4	4		
④ 지금으로서는 알수없다	275	79	101	85	92	78	82	72	174	78	101	85	76	84		
⑤ 기타	2	1	0	0	0	0	2	2	2	1	0	0	0	0		
⑥ 모르겠다	13	4	2	2	1	1	10	10	11	4	2	2	0	0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있으며, 区分別로는 社会科学系가 13%로써 가장 높은 것이다. 그만큼 大学生들은 統一成就의 時期를 早速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형편으로는 알수 없다」는 態度가 現在에 있어서만해도 79%라는 圧倒的인 比率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態度率이 더욱 成長하게 되면 할수록 統一에 대한 熱意가 低下되어 國家의 統一 및 安保政策에 無関心 내지는 無誠意한 態度로 變形하게 될런지도 모를 것이다. //

② 安保觀에 나타난 態度分析

ㄱ. 對共產圈 開放政策 <표 B~1>

6.23 特別宣言에 따른 對共產圈 開放政策은 우리나라外交의 획기적인 轉換策이라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그의 利害得

<표 B~1> 대공산권 개방정책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전체 (350명)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안보에 자신이 있기때문	121	35	45	38	40	34	36	32	76	33	45	38	36	39
② 안보에 위협	64	18	26	22	17	14	21	19	38	16	26	22	12	13
③ 북한 군사력 약화 목적	33	9	19	16	8	7	6	5	14	7	19	16	6	7
④ 북한의 지위 저하목적	87	25	17	14	36	31	34	30	70	30	17	14	32	35
⑤ 기타	18	5	5	4	4	3	9	8	13	6	5	4	4	4
⑥ 모르겠다	27	8	7	6	13	11	7	6	20	8	7	6	2	2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失을 評價할 수 있다 하겠으나, 여기서는 우리나라 安保와 關聯시켜
 學生들에게 質問 하였다. 그 結果는 全體의 応答比率로 보아서 「우
 리나라 安保에 自信이 있기 때문」에 公産권에 門戶를 開放하여 우리
 의 國家利益의 追求를 하게 되었다는 比率이 35%로 가장 높은 편
 이며, 한편 「北韓의 共産圈内部에 있어서의 地位를 低下시키게 될 것」
 이라는 것이 25%로서 그 다음 順位가 된다. 이세대하여 18%는 우
 리의 安保에 위험하다는 態度를 反映하고 있다. 따라서 女學生의
 38%가 安保에 自信을 갖고 있으며, 22%가 安保에 自信을 잃고
 있는 態度이고, 14%가 北韓의 地位 低下를 시킬 수 있다고 믿고있는
 그 順位만을 除外하고는 各區分別의 応答에 있어서 그 態度表明의 比
 率의 順位가 全體의 境遇와 모두 同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安保에
 自信을 갖고 公産권에 門戶를 開放은 하였으나 恒常 우리의 安保에는
 경계를 요한다는 態度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ㄴ. 反共法 國家保安法 廢止要求 <표 B ~ 2>

지난 72年 10月 24日 평양에서 열렸던 第3次 南北赤十字
 會談에서 北韓赤十字 代表가 들고나와 南北對話를 空轉시킨바 있는 南
 韓에 있어서의 「반공법 國家保安法의 廢止」요구에 대해서 北韓側이
 떠들고 있는 「南韓에 있어서 반공법 國家保安法을 廢止한후 參된
 여론에 의해서 人民政府를 樹立하여 統一하자」는 그들의 意圖를 學
 生들에게 물은 結果 「南韓 國民의 진정한 여론을 파악하자는 것이
 다」에 대해서는 全體의 겨우 8%의 応答率밖에 없는데 대해서,
 놀라움게도 「南韓 國民의 反共思想을 약화 시킬려는 것이다」라고 생각

하는 率이 50%나 되며, 이러한 意思表示의 現象은 各区分에 있어서도 同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의 順位가 「南韓에서의 간첩활동을 자유로이 하자는 것이다」라는 応答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學生들의 意識態度에는 北韓이 要求하는 「반공법 국가안보법」 등의 廢止요구는 참된 統一基盤의 造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赤化統一 음모의 一環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否定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표 B ~ 2 > 반공법 국가안보법 폐지요구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학생	
	비율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신		학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남한에서 간첩활동 하자는것	93	27	20	17	37	32	36	33	73	32	20	16	29	32		
② 반공사상약화목적	176	50	62	52	58	49	56	49	114	49	62	53	45	48		
③ 남한의 여론 파악	28	8	17	14	6	5	5	4	11	5	17	14	8	9		
④ 남북회담지연목적	35	10	18	15	11	9	6	5	17	8	18	15	7	8		
⑤ 기 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⑥ 모르겠다	18	5	2	2	6	5	10	9	16	6	2	2	3	3		
응답 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ㄷ. 南北韓의 軍備 縮少問題 < 표 B ~ 3 >

亦是 평양에서 73年 3月 14日에서 16日에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北韓側이 내놓은 所謂 「軍事 5個項目」中 南北韓의 軍隊를 各各 10万以下로 減縮하자는 案에 대해서 學生들의 動態를 調查하였다. 或은 이 提案이 實現되면 學生들의 兵役義務가 免除될 것이 期待되어 北韓側의 이 軍備縮少案에 圧倒的으로 支持하는 態度가 나타나 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는 아니 하였으나 뜻밖에도 調查結果 < 표 B ~ 3 >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體學生의 81%가 「남한의 군사력의 공백을 만들어 무력남침 할려는 흥계이다」라는 意識으로 集中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各區分別 統計에 있어서 一般的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特히 社會科學分野가 90%의 最高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生들에게는 나라를

< 표 B ~ 3 > 남북한군비 축소문제

응답구분	외조사자구분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비율		전체 (350명)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신학생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무력충돌 제거	22	6	13	11	5	4	4	4	9	4	13	11	4	4		
② 무력남침 흥계	284	81	86	72	106	90	92	82	198	86	86	72	72	78		
③ 무력통일 포기	13	4	7	6	0	0	6	5	6	3	7	6	8	10		
④ 북진통일 두려워서	10	3	5	4	2	2	3	3	5	2	5	4	3	3		
⑤ 기타	7	2	2	2	1	1	4	3	5	2	2	2	3	3		
⑥ 모르겠다	14	4	6	5	4	3	4	3	8	3	6	5	2	2		
응답자 총수 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安保精神의 철저한 意識이 確立되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ㄹ.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표 B ~ 4>

이 問題 또한 「軍事 5 個項目」中の 하나로서 언제인가는 平和協定에서 統一으로 指向해야할 課題 이기는 하다. 그러나 現段階에 있어서 北韓側이 「眞正한 平和統一을 위해서 平和協定을 締結해야 한다」는 主張에는 學生들이 全혀 否定的인 態度를 취하면서도 北韓側의 恠제에 대해서는 意見이 大体로 分散 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 중에서도 「南韓에 있어서의 外國軍隊의 駐屯理由를 없애기 위한 術策이다」는 態度가 一般的으로 圧倒的인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女大生보다 男學生이, 다른 分野보다 社会科学分野가 가장 높은 率로

<표 B ~ 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응답구분 비율	전체 (350명)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평화통일을위해서	4	1	4	3	0	0	0	0	0	0	4	3	3	3		
② 외국군대주둔 이유제거	169	49	37	32	73	62	59	52	132	57	37	32	53	58		
③ 북한만의무력증강	85	24	35	29	23	20	27	24	50	22	35	29	6	7		
④ 총력안보정신약화	75	21	41	34	17	14	17	15	34	15	41	35	14	15		
⑤ 기 타	3	1	0	0	0	0	3	3	3	1	0	0	16	17		
⑥ 모르겠다	14	4	2	2	5	4	7	6	12	5	2	1	0	0		
응답자총수및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表示되고 있다. 그 다음 順位도 亦是 一般的인 傾向인 것으로서 平和協定을 締結해 놓고 「北韓은 如前히 武力增強을 계속하고 南韓세만 軍備縮少를 強要할려는 흥계」라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 의 總力安保 精神을 약화시킬려는 計略」이라고 생각하는 態度的 順으로 集約되고 있다. 그러므로 學生들의 意識은 現段階에 있어서의 平和協定締結의 主張은 다른 어떤 安保對策이 없는限 外國軍隊撤収를 目的으로 하는 北韓側의 흥계라는 생각에서 反對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가 있는 것이다.

□. 外國軍隊撤収 <표 B~5>

이것은 앞의 問題와 關聯되는 것으로서 北韓側이 6.25動亂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時도 改치지 않고 固執처럼 主張하여온

<표 B~5> 외국군대 철수문제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체 (350명)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통일시까지 지 철수 반대	263	76	90	76	90	76	83	73	173	76	90	76	66	71		
② 유.엔군 철수 미군주둔	15	4	5	4	6	5	4	4	10	4	5	4	6	7		
③ 외국군전부철수	25	6	9	8	8	7	8	7	16	7	9	8	7	8		
④ 철수해도 안해도 좋다	28	9	11	8	8	7	9	8	17	7	11	8	9	10		
⑤ 기타	5	1	2	2	0	0	3	3	3	1	2	2	2	2		
⑥ 모르겠다	14	4	2	2	6	5	6	5	12	5	2	2	2	2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그들의 對南戰略의 核心問題이다. 이에 대해서 學生들의 相當한 比率이 同調하고 支持의 態度를 취하거나 않을까 念慮도 하였으나 尙히 像想外로 全體의 76%를 비롯해서 各區分別에 있어서도 우연하게도 거의 같은 比率로써 「統一이 成就될때까지는 外國軍의 撤収는 反對한다」는 態度表示로 集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態度를 취하는 學生들의 意識構造는 6.25 動亂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外國軍隊가 우리의 安保를 맡아준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北韓側이 떠들어대듯이 그들이 南韓에 駐屯하여 「수탈과 착취를 한다」는 허위선전을 否認하고 유.엔軍, 美軍이야말로 平和의 使徒로써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으로 分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北韓의 再南侵豫想 <표B ~6>

<표B ~6> 北韓의 재남침 가능성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체 (350명)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명	%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반드시 남침한다	106	30	38	32	37	30	31	27	68	29	38	32	28	30				
② 남침할지도모른다	211	62	73	61	64	55	74	66	138	58	73	61	54	59				
③ 남침안 한다	16	4	5	4	8	7	3	3	11	6	5	4	7	8				
④ 남침 완전히 포기했다	4	1	1	1	3	3	0	0	3	1	1	1	0	0				
⑤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⑥ 모르겠다	13	3	2	2	6	5	5	4	11	6	2	2	3	3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우리는 6.25動亂때 北韓의 不法南侵의 被害를 입고 있다. 그 후에도 그들로부터 계속적인 무력도발과 무장공비남파에 의한 被害를 입어왔다. 그러한 被害意識에서인지 「北韓」이라고 하면 으레히 「南侵」이라는 先入感이 作用하게 된다. 本調査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北韓이 또다시 南侵하리라는 豫想에로 絶对多數의 態度가 集中되고 있다. 단 그 豫想의 態度에 있어서 積極性과 消極性으로 나타날 뿐이다. 全體의 62%가 北韓이 앞으로 「南侵할지도 모른다」는 態度이고, 30%가 「南侵한다」는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 一般적으로 北韓이 「南侵을 完全히 포기했다」거나 「南侵은 않한다」는 反應은 아주 적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識態도가 <표 B~5>와 關聯되어 統一이 完全히 實現될때까지는 一切의 外國軍隊가 韓半島에서 철수해서는 않된다는 表明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生들은 一般적으로 一切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提案이나 宣傳은 對南赤化武力統一을 假裝한 것으로 解釋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武力南侵에 對備한 國民의 總力安保를 <B~10>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絶對적으로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8. 鄉土豫備軍問題 <표 B~7>

이것 亦是 前項의 <표 B~6>과 關連성이 있는 問題로서 全體의인 統計에 의하면 鄉土豫備軍을 우리의 安保와 關連해서 「아주 없애도 무방하다」는 態度와 그 數를 「줄여도 지장이 없다」고 보는 見解를 합해서 22%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더욱 증강해야 한다」의 40%, 「현재정도로써 알맞는다」는 態度가 33%, 이것을

모두 합하면 73%의 學生이 향토예비군이 우리安保에 絶對로 必要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在學生中에는 향토예비군에 動員되는 數도 적지않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이와같은 圧倒的인 比率로써 豫備軍의 存続을 支持하고 있음은 北韓共産主義者들의 南侵에 대한 증오감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区分別統計에 나타난 比率를 보면 아직도 若干 그들의 主觀의 意識態度에 作用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男學生과 女學生의 区分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더욱 증강해야 한다」는 応答에 대해서 女學生이 58%인데 比하여 男學生은 34%로 낮은 比率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 표 B ~ 7 > 향토예비군 문제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 체 (350명)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 학생	
	명	%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더욱증강해야한다	146	40	69	59	38	32	39	34	77	34	69	58	42	46
② 현재로 알맞는다	114	33	34	28	38	32	42	38	80	35	34	29	24	25
③ 줄여도 안보에 지장 없다	48	14	12	10	19	16	17	15	36	15	12	10	14	15
④ 없애도 무방하다	28	8	4	3	13	11	11	9	24	10	4	3	6	7
⑤ 기 타	2	1	0	0	1	1	1	1	2	1	0	0	2	3
⑥ 모르겠다	12	4	0	0	9	8	3	3	12	5	0	0	4	4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 学生教練問題 < 표 B ~ 8 >

이것도 앞의 問題와 마찬가지로 學生들의 日常生活과 關聯되고 있는 問題이다. 그들의 主觀이 作用하여 意識態도를 抑制하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絶對로 必要하다」는 意識을 망각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도 亦是 女學生보다 男學生의 比率이 낮기는 하지만 全体的으로 보아서 43%가 「絶對로 必要하다」는 態度이고, 32%는 「필요하기는 하나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걱정하는 態度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後者의 態度는 앞으로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關係當局에서 是正만 하게되면 「絶對로 必要하다」는 態度로 集甲될 것이라고 보아 모두 75%가 学生教練을 支持하는 態度로 把握되는 것이다.

< 표 B ~ 8 > 학생교련문제

응답구분	피조사지구분 비율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350명)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신학생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학생교련절대필요	149	43	64	54	48	41	37	33	85	36	64	54	38	41		
② 필요하나공부예지장	108	32	41	34	33	27	34	30	67	29	41	34	30	33		
③ 안보에도움않된다	38	10	6	5	16	14	16	14	32	14	6	5	12	13		
④ 없애면 좋겠다	42	12	8	7	18	15	16	14	34	16	8	7	10	11		
⑤ 기타	5	1	0	0	1	1	4	4	5	2	0	0	2	2		
⑥ 모르겠다	8	2	0	0	2	2	6	5	8	3	0	0	0	0		
응답 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스.南韓의 北韓에 대한 취약점 <표B~9>

一般的인 与論에 의하면 北韓의 經濟는 武力增強을 위한 重工業으로 發達되고, 南韓은 國民의 福祉生活을 爲主로 하는 輕工業이 發達하여 經濟成長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精神面에 있어서는 北韓은 金日成의 共產主義思想으로 一元化되어 있으나 우리 南韓은 自由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下에 國民意識이 多元的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豫備知識으로해서 學生들에게 南北韓의 能力을 比較하도록 하였다. 그 結果는 經濟力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南韓이 優勢한 比率을 보이고 있으나, 精神力의 37%, 軍事力의 23%가 南韓이 北韓보다 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가지 比率을 합하면 結局 學生의 60%라는 多數가 「北韓의 軍事力과 精神力」이라는 圧力을 받고있는 셈이 된다. 여기에서 「위세가지 또는 두가지가 다

<표B~9> 남한의 북한에 대한 취약점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공분야별						성별				농촌출신학생	
	전체 (135명)		인문		사회		자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경제력이 약하다	12	4	3	3	6	5	3	3	9	5	3	3	3	3
② 군사력이 약하다	80	23	11	9	36	30	33	29	69	31	11	8	20	22
③ 정신력이 약하다	134	37	59	50	33	28	42	38	75	33	59	50	36	39
④ 위세가지 또는 두가지가 약하다	81	23	45	38	25	21	11	9	36	12	45	38	24	26
⑤ 기타	2	1	0	0	2	2	0	0	2	1	0	0	0	0
⑥ 모르겠다	41	12	1	1	16	14	24	21	40	18	1	1	9	10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약하다」의 態度 23%마저 합하면 83%의 絶对多数 學生들이 北韓의 力量을 南韓에 比해서 過大評價하고 있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그러므로 경쟁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相對方을 過大評價하는 데서 얻어지는 利点도 있다 하겠으나 不必要한 浪費와 非能率이 따른다는 것도 留意하여 學生들을 善導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ㄷ. 우리의 安保는 누가해야 하나 <표 B~10>

앞에서 學生들의 統一問題에 있어서의 主体意識이 確立되어 있음을 보았고, 또 安保에 있어서도 北韓에 대한 증오와 不信感이 높아서 언제든지 그들이 또 다시 武力南侵하게되면 그에 對備하겠다는 精神 姿勢가 確立되어 있다는 것도 調査分析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結論的으로 北韓共産主義者들과 경쟁하여 平和的으로 統一이 될때까지 「우

<표 B~10> 안보는 누가해야 하나

응답구분	피조사자구분 비율		전 공 분 야 별						성 별				농촌출신학생	
	(350명)		인 문		사 회		자 연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① 미군과유. 안군	4	1	2	2	2	2	0	0	2	1	2	2	0	0
② 일본이말아야한다	0	0	0	0	0	0	0	0	0	0	0	0	1	1
③ 우리국군과경찰이	10	2	0	0	6	5	4	4	10	4	0	0	1	1
④ 전국민의총력안보로	333	96	117	98	110	93	106	93	216	93	117	98	89	97
⑤ 기 타	1	0.5	0	0	0	0	1	1	1	1	0	0	0	0
⑥ 모르겠다	2	0.5	0	0	0	0	2	2	2	1	0	0	1	1
응답자총수및 비율	350	100	119	100	118	100	113	100	231	100	119	100	92	100

리의 安保를 누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學生들에게 質問하여 보았다. 그 應答은 이미 豫想은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豫想外로 놀라운게도 어느 区分에 있어서를 不問하고 100%에 가까운 絶對的 比率로써 우리의 安保는 유.엔軍이, 美軍이, 日本軍이 맡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國軍과 경찰관만이 맡는 것도 아닌 「전국민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총력안보가 된다」는 表明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우리의 10月維新精神이 學生들에게 그대로 잘 反映되고 있는 증거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3. 6. 23 宣言以前과의 意識變化의 比較

여기서 參考的으로 몇가지 共通問題를 추려서 6.23 宣言以前의 大學生들의 意識構造와 本調査에서 나타난 그의 比率과를 比較分析해 보고자 한다. 6.23 宣言以前의 레이타는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의 1973年8月3日字 國土統一院提出報告書 「南北對話와 大學生 善導의 問題點」과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의 1972年10月日字 亦是 國土統一院提出報告書 「南北共同聲明 以後의 大學生의 統一 및 安保價值觀調査」에 나타난 것을 參考로 한다.

먼저 南北韓의 印象比較에서 시작하면 前述한 東國大 安保研究所(便宜上 東保研으로 省略함)의 調査에 의하면 南北韓 住民生活比較에서 「우리가 잘 산다」라는 應答形式으로 71年이 87.7%에서 72年에 79.6% 그리고 또 72年 71.3%로 比率이 낮아지면서 相對的으로 北韓側에게 좋은 印象으로 그것이 높아가고 있다(東保研 P 47).

한편 이것과 비슷한 問題로서 朝鮮大學校 統一問題 研究所 (便宜上 朝統
研이라 稱함)에서 72年 10月 調査 한바에 의하면 北韓이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다」가 44.8%인데 대해서 「예상보다 자유롭다」는 37.6
%의 比率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北韓이 「대한민국
만 못하다」가 48%이고, 「그런대로 살수 있을것 같다」의 意見이
30%나 된다. 이와같이 學生들의 意識態度는 南北對話 以後에 北韓
에 대한 印象이 肯定的으로 높아져가며, 肯定과 否定間의 幅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다음 統一實現의 順序에 있어서 「東保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측의
三段階統一 方案에 대한 支持率이 48%, 北韓側案의 支持率이 10%
(同, P.43)에 不過하였으나 이번 本調査에서는 우리側案이 57%,
北韓側案이 13%로 各各 약간씩 上昇하고 있다. 또한 北韓이 主張
하는 反共法 國家保安法 廢止問題에 대해서 「東保研」에서는 南北對話
進行過程에서 提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對話와 關聯시켜 「南北對
話を 赤化統一에 利用하려는 것이다」라는 意見이 48%이며, 「会谈지
연수단 이다」가 28% (同, P.54)가 되었으나 本調査에서는 「会谈
지연目的」이 10%로 크게 低下되고 있으며 또 그동안 北韓側의 고
의적인 對話中斷策動으로 미루어보아 이것은 根本적으로 「남한의 반공
사상을 약화시킬려는 것이다」라는 形態로써 50%의 表示率을 나타내
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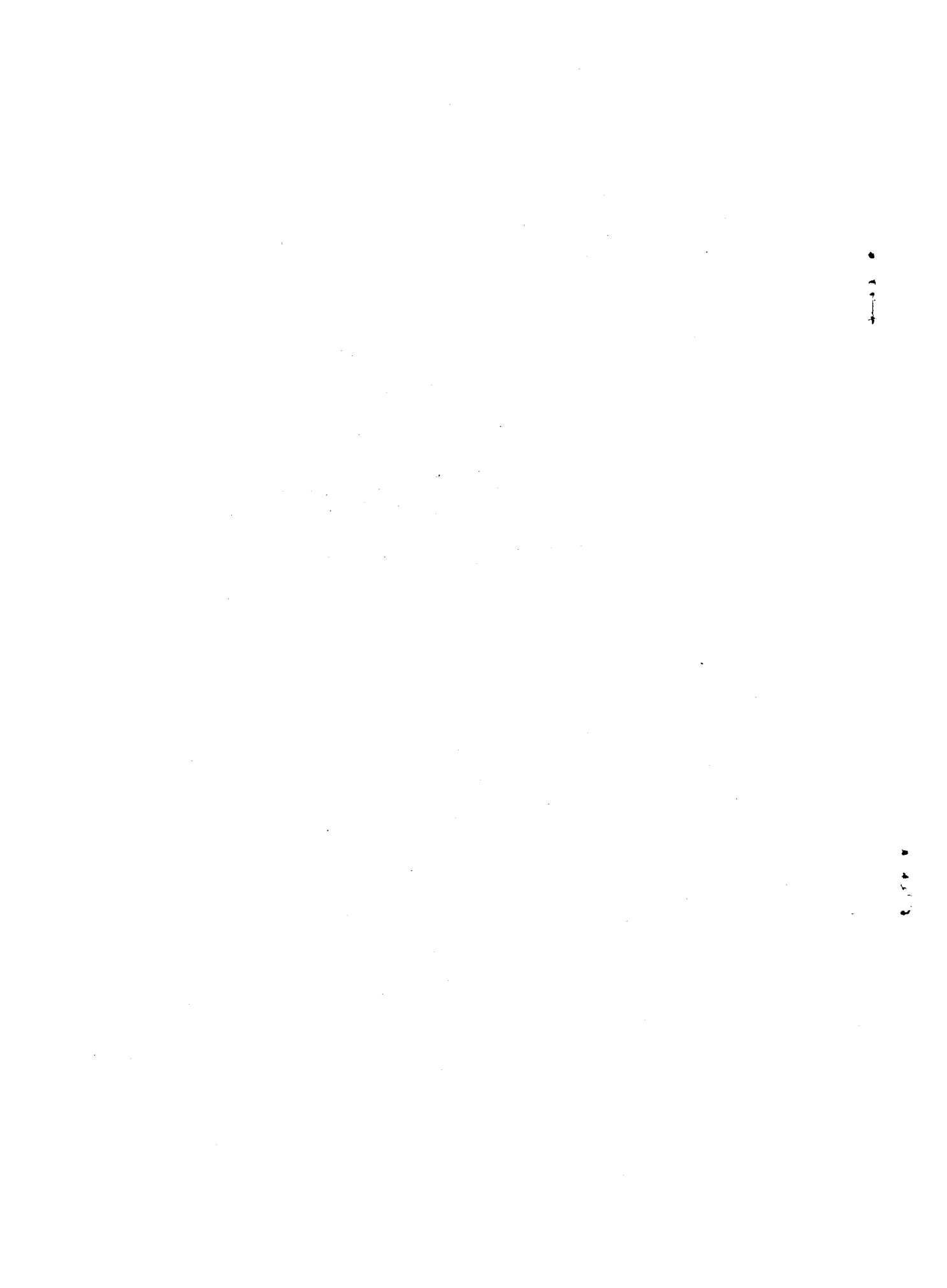
한편 北韓의 南侵可能性 如否를 물은 結果는 南北對話가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는 72年 「東保研」의 調査에 의하면 南侵이 「當分間

없을것」에 50.8%, 「全面南侵 可能」이 17.8%였든 것이 73년에 이르러 北韓의 고의적인 방해로 對話가 점점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가자 「當分間 없을 것」이 36%로 低下되었고, 反面 「全面南侵可能」이 28%로 上昇하였다. 이것이 지난번 北韓側의 一方的인 對話中斷과 그들의 위협적인 態度에 놀란 學生들은 이번 調查에서 「南侵할지도 모르겠다」가 62%이고 「반드시 南侵한다」는 30%, 「南侵 않한다」가 겨우 4%라는 下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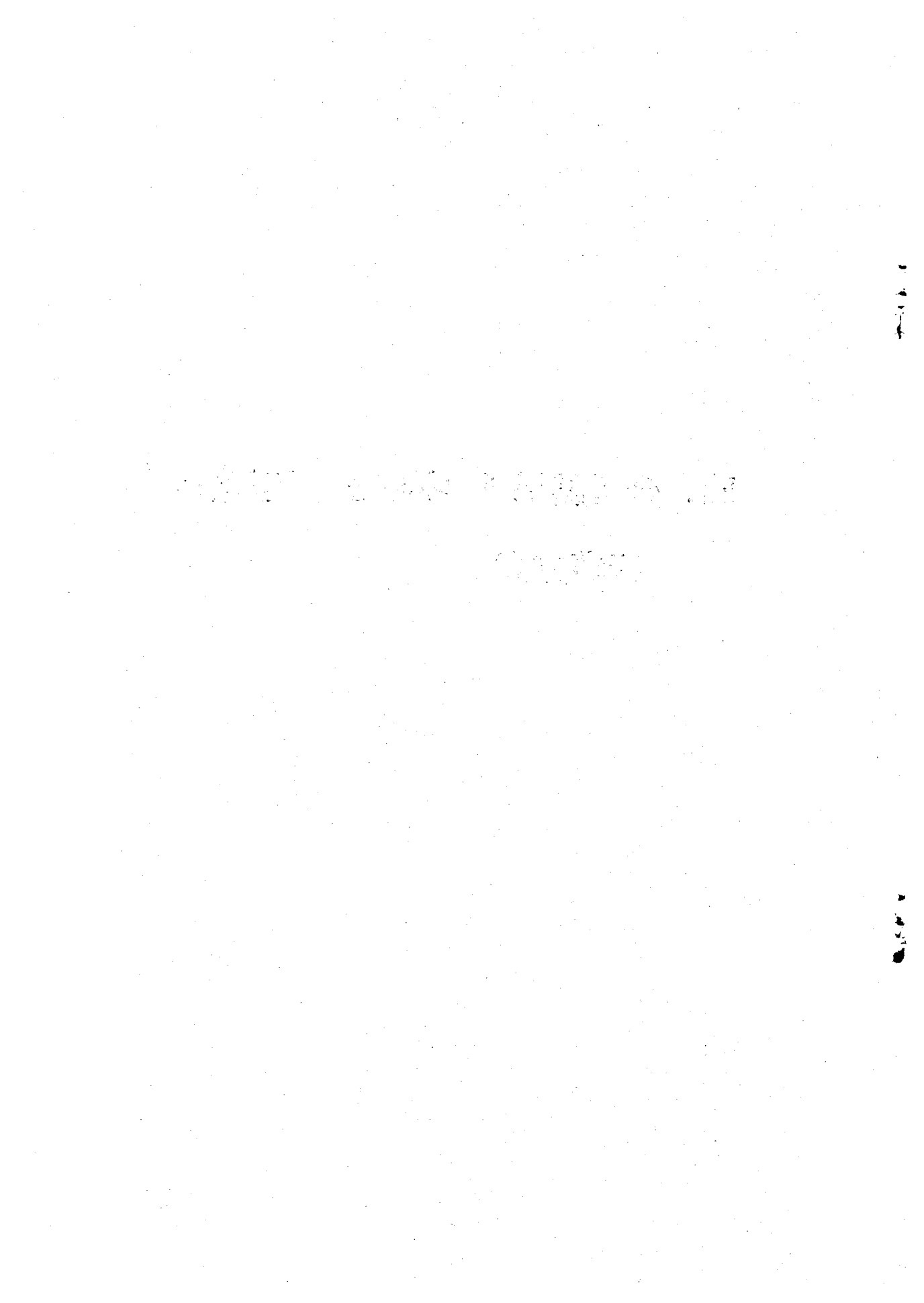
이것과 관련해서 學生들의 安保意識에도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72年 「東保研」의 調查에서는 「外國軍隊撤収反對」가 49.2%에서 73년에는 60%였든 것이, 本調查에서는 76%로 上昇하고 있다. 따라서 學生敎練問題에 있어서도 72年 南北共同聲明直後 「朝統研」에서 調查한 바에 의하면 「학생교련 존속해야 한다」가 58%에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意見이 32% (同. P 35)였든 것이 이번 이 調查에서는 75%가 學生敎練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으며, 22%가 그에 反對하는 立場에 서있는 것이다.

統一의 時期豫測에 있어서도 「東保研」에 있어서는 「統一의 時期를 모르겠다」가 72年 57.4%, 72年 59.1%에서 73年 다시 56% (同. P 41)로 내려갔다가 이번조사에서는 「지금형 편으로는 알수 없다」는 態度로 79%로 뛰어 오르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共產主義者들의 고의적인 작난으로 因한 南北對話의 不振狀態 또는 中斷狀態는 그것이 그대로 젊은 大學生들의 意識構造에 反映되어 수시로 認識의 變化를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 分析結果에 나타난 問題點과 善導方案



四. 分析結果에 나타난 問題點과 善導方案

앞에서 우리나라 大學生은 世界어느나라 大學生 못지않을 정도로 現實參與의 意欲과 關志가 強하다는 것을 논한바 있다. 따라서 그만큼 既成人과 指導層에서도 그들을 올바르게 善導할 責任이 무겁다 할것이다. 더욱기 國土의 分斷이라는 特殊한 環境條件下에서 그것도 時時로 變化하는 情勢의 動向에 따라 젊은 學生들을 올바르게 引導하기란 그리 쉬운일도 아닌 것이다. 이번 調查結果에 나타난 몇가지 問題點도 바로 이러한 困難性들을 內包하고 있다 할것이다. 이러한 困難한 몇가지 問題들이 6.23 宣言以後 다음과 같은 認識變化의 形態로서 나타나고 있다.

1. 認識變化에 따른 問題點

여기서 認識의 基準은 南北對話以前이나 6.23 宣言 以前에 두고 있음은 勿論이다. 그 時期를 前後로한 大學生들의 認識變化現象을 指摘하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

① 南北韓에 대한 比較感覺에서 肯定과 否定의 態度의 幅이 점점 接近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南北對話以前의 우리 學生들의 北韓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零點에 가까운 否定的인 態度였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의 反共教育을 비롯한 啓蒙教育에서 北韓에 대한 虛像만을 가르쳐 왔던것이 對話過程을 통해서 그것이 實像으로 느껴지게 되었으며, 또 그 內容에 대해서도 人間이 살고있는 現實이라고 把握되어 젊은 時節의 동경심에서 北韓에 대한 認識態度가 變化되었다고 생

하고 싶다.

그러나 이 問題를 이렇게 善意로만 解釈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萬若 그들의 價值觀의 變化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때에는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問題는 여러 側面에서 指導할 수도 있겠으나 教育的 立場에서는 그들에게 北韓에 대한 豊富한 知識을 주고 討論과 批判의 能力을 키워주어 北韓을 憧憬의 對象에서가 아니라 批判의 對象으로 靑睞하며 그들의 무모한 허위선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고한 信念을 키워주는 것만이 最善의 方案이라고 본다.

② 統一에 대한 無關心 또는 惝悵者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같이 統一이 언제 實現될지 모르겠다는 應答者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저한 事實이다. 그 중에는 統一이 實現되기를 바라기는 하나 正確히 언제쯤 될지를 모르겠다는 意見도 있겠지만 其間의 情勢變動等으로 미루어 보아 統一이 그리 쉽게 實現될 것 같지도 않으니 내가 關心을 가질바가 아니라는 惝悵에서 오는 應答者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政府의 統一政策에 있어서는 統一의 時期를 長期的인 眼目에서 展望할 것을 啓蒙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態度의 比率이 늘어날 可能性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比率의 成長은 우리의 統一基礎作業을 위한 國論統一과 總力安保에 제대로 能率을 發揮하지 못하게 하는 要因으로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벼운 問題로만 생각해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③ 南北對話 中斷責任의 所在이다.

本調査〈표 A~7〉에서 南北對話 中斷責任을 學生들에게 물어본 結果 그 半數의 學生이 兩 쪽에 모두 責任이 있다고 應答하고 있다. 이것은 公교류제도 金大中氏 事件과 때를 같이하여 北韓側이 一方的으로 對話中斷을 宣言하였기 때문에 學生들에게는 北韓側의 中斷理由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結果에서 온 比率이 아닐가도 생각된다. 萬 若에 學生들의 態度가 그런 認識에서 나타난 것이라면은 앞으로 政府에 대한 不信感이 助長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解明으로 對話中斷原因과 理由를 充分히 說明하여 納得시켜야 할 것이다.

④ 올바른 情勢의 理解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勿論 被調査者의 全部가 社会科学을 專攻하거나 그날 그날의 情勢變化에 깊은 關心을 갖고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普通의 境遇는 大體的인 時局의 變動을 짐작은 하고 지나게 마련이지만 最近의 情勢變動은 미처 記憶할 時間도 주지않고 發展하는 메다가 政府의 統一政策指導에 있어서도 統合性 또는 單一性을 維持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學生들이 올바른 情勢觀을 把握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⑤ 信念이 不足하다는 것이다.

人間의 價值觀形成에 있어서는 信念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信念이 뒤따르는 價值觀은 自己가 形成한 것이 아니라 外部로 부터 賦與된 것이다. 外部로 부터 賦與된 價值觀은 外部事情의 變化에 따라서 恒常 流動하게 마련이다. 勿論 價值觀이란 것이 絶對的인 것도

不變的인 것도 아닌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與論調查할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信念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주어진 價值觀이 若干의 外部의 變化에 의해서 隨時로 變形하며 또 價值觀의 統一性이 欠如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本調査〈표 B~5〉에 있어서 外國軍隊撤収問題를 質問한 結果 「統一될 때 까지 撤収 反對」에 76%라는 多數가 應答하고서도 〈표 B~10〉에서 우리의 安保를 누가 担当해야 하느냐의 質問에는 「美軍과 유엔軍」에는 단 1%의 應答이 있을 뿐이고, 「全國民의 總力 安保」로 해야 한다는 應答으로 絶對多數인 96%의 比率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信念이 없는 주어진 價值觀 때문에 部分的이기는 하나 南北對話以後 北韓에 대한 好意的 또는 同調的 態度가 學生들 間에 늘어 난다고 생각한다.

人間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信念, 北韓共産主義者가 南韓의 發展相을 보고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現狀이며 그러한 發展相은 資本主義와 더불어 早晚間 滅亡한다는 唯物史觀에 立脚한 信念, 이러한 信念下에서 形成되는 價值觀은 어떠한 外的 要因이 作用하여도 좀처럼 變化하지 않을 것이다. 本調査〈표 B~9〉에서 學生 自身들도 우리가 北韓에 比해서 「精神力이 약하다」는 점을 37%의 가장 높은 比率로 指摘하고는 있다. 精神的인 信念의 確立은 北韓과의 思想戰에서 勝敗를 左右할만큼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으며, 學生들의 安保와 統一問題에 관한 價值觀의 形成도 이러한 根本的인 哲學的 倫理的 信念이 없는한 그의 連약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善導方案

全体的으로 볼때 本調査에 나타난 本大学校 學生들의 統一 및 安
保 價值觀의 態度는 健全하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몇가지 指摘한
問題들의 是正은 根本적인 教育內容과 制度의 再檢討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① 教育內容에 있어서의 再檢討

지금까지의 大學生들에 대한 政治教育은 無批判적인 價值強要의
教育이었다. 그래서 敎壇에서 敎授가 「共產主義란」 하면 學生들은 으
레히 「그것은 나쁜 思想이다」라고 앞질러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敎授가 할려는 말에는 이미 結論을 얻었다는 듯이 귀담아 들을려고
하지도 않는 傾向도 있었다. 그것은 敎授의 講義 內容도 극히 단조
롭고 共產主義에 대한 皮相적인 理論程度에 不過하며, 結論에 있어서
도 「그저 共產主義는 나쁘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식이
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敎授에 대한 環境的 制裁性이 作
用하는 데도 原因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制裁性을 大幅
완화하지 아니 하고서는 참된 價值觀과 信念을 學生들에게 確立시키줄
수가 없는 것이다.

大學에서 統一-安保教育을 担当하고 있는 敎授에게는 特別한 身分保障
에서 많은 研究資料가 提供되어 共產主義 또는 北韓에 대한 實際生活
面을 研究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이것을 學生들에게 가르치므로
써 그들에게 共產主義에 대한 批判能力을 키워주고, 批判能力이 생겼

을때 自己의 位置를 알게되고 自身의 信念이 確立되도록 善導하여야 할 것이다. 自身의 信念이 確立됨이 없이 認識客體에 대한 올바른 價值觀이 確立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當然한 所以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統一安保問題에 대한 價值觀을 學生들에게 確立시켜주는 教育은 어느 特定分野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制限性을 可及的 없어야 할것이다. 어떤 專攻分野를 莫論하고 우리의 主体性的 確立과 民族的 利益이 될수 있는 內容을 強調하므로써 學生들에게 價值觀形成에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國民倫理担当教授나 政治學教授以外에는 學生들의 統一安保教育에 關与하지 않는다는 것은 民族的인 統一課題를 外面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現實的인 問題로서는 모든 大學의 教授들 自身이 統一安保觀과 自身의 信念이 어느 程度 투철하느냐 하는 것이다. 信念이 없는 教育內容은 學生들에 대한 說得力이 없고 그들을 뚜렷한 方向으로 引導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生들에게 올바른 統一安保觀을 갖도록 善導하여야 할 모든 教授自身들이 먼저 올바른 信念을 갖고 教育에 臨해야 할것이 要求되는 것이다.

② 教育制度面에 있어서의 補完

大學에 있어서의 統一安保教育을 위한 機會란 國民倫理時間外에는 별로 時間이 없다. 이것도 大學의 形便에 따라서는 一週當 2時間 밖에 없는 實情에다 이것마저 한 學期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보면 國民倫理時間은 마치 가끔 모이는 時局講演會같은 印象밖에 學生들에게 주지 못하며, 그들에게 充分한 價值觀의 形成을 위한 機會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倫理時間을 늘이던지 아니면 國民倫理內容을 몇개의 獨立科目으로 分離 編成하여 教育을 하던지 하는 制度上의 補完이 要請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學生의 統一安保教育을 國民倫理科目에서만 취급할게 아니라 大學의 言論機關을 크게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指定된 講義時間의 安保教育은 時間的 制約도 받거니와 一般教養科目과 같은 것으로 學生들에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關心을 일으키지 못하나 學校新聞 放送等의 補助機能은 크게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大學研究機關의 統一安保세미나에 大學生들을 可及的 無制限 參席시켜 그들로 하여금 關心을 갖게하며, 學生들 自身에게도 統一問題에 관한 討論會나 웅변大會를 하도록 장려해주고, 北韓 또는 共產主義社會에 관한 映畵, 寫眞, 畫報等을 觀覽시키는 制度를 마련하여 統一 및 安保에 관한 價值觀이 그들의 日常生活속에서 體得이 되도록 산 教育制度를 마련하므로써 大學生들을 올바른 길로 善導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